

저자 (Authors)	김영옥
출처 (Source)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11.2, 189-204(16 pages)
발행처 (Publisher)	구결학회 The Society Of Kugyol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22076
APA Style	김영옥 (2011). 삼국 시대 이두 자료의 특징과 연구 방법.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9-20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5 14: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 시대 이두 자료의 특징과 연구 방법

김 영 옥(서울시립대학교 국문과)

1. 대상과 방법

1.1. 삼국시대

국어사 연구 방법의 기본은 문헌적 연구다. 비교나 내적재구, 방언 등은 문헌자료의 결핍을 보충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이렇다 할 문헌 자료가 없었다. 삼국지,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지만 삼국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후대의 기록이라서 再構의 문제가 따른다.

삼국시대 이두의 연구에 있어서는 1차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塹文, 金石文, 木簡文, 瓦文, 陶文 등은 이 시대의 언어를 窺察하는 직접적인 자료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1차 자료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삼국시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그 절대 연도가 매우 길다. 신라의 건국이 시작되는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통일 신라가 성립되는 7세기에 이르는 시기를 합치면 700여년의 긴 세월이다. 이것을 하나의 시대로 묶기에는 언어학적인 면이나 언어 자료의 표기 면에 있어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混在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낙랑이 멸망한 4세기를 기준으로 삼국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고자 한다. 전기는 낙랑에 移植된 漢의 문자문화 혹은 문서행정이 지배적인 시기였고, 후기는 5세기부터 7세기까지로 고구려를 시작으로 백제, 신라의 이두가 차례로 발전한 시기다.

삼국시대 전기는 문헌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부족들이 공존했던 시기다. 당시의 한반도에는 매우 다양한 부족언어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가령, 왕에 관한 단어도 오늘날과는 달리, 居西干,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 於羅瑕, 韃吉支 등으로 전혀 다른 계통의 단어들 이 전해진다. 마치 원시 부족(tribe)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들이 이 땅에 존재했을 것이다. 부족 간의 언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문헌 기록밖에 없어서 그 실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는 고대 한반도 지역어들을, '고대국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칭하여 서술하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국어사 기술의 편의에 따른 것 이외에 다른 언어학적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듯하다. 고대국어에 대한 학계의 통설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까지로 잡으며 고려시대부터는 중세국어의 시작으로 보지만, 대다수의 구결연구자들은 고대국어를 13세기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고대국어 시기는 1400여년으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를 모두 합한 시기보다

도 길다¹⁾. 일반 역사학에서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 아무리 구결 자료의 특수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기 구분에 있어서 무리가 아닌가 한다.

구결 자료라는 특수한 사항보다는, 통일전쟁으로 인한 군소 부족어의 소멸이라든지, 새로운 중앙어의 등장, 수도의 이전으로 인한 중앙어의 교체 등이 국어사적으로도 더 비중 있는 사건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고대국어’라는 통칭적 표현 대신에 ‘삼국시대 전기, 삼국시대 후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1.2. 이두

이두에 대한 연구는 金石文과 鄉歌 해독의 연구에서 싹트다. 朝鮮總督府에서 편찬한 吏讀集成의 부록 제 1면에는 다음과 같은 石刻文이 실려 있다. 丙戌十二月中 漢城下後部小兄文達節 自此西北行涉之.²⁾ 集成의 凡例에는 “本書吏讀の蒐集及び編輯は、主として本院囑託金聖睦氏が之を擔當した”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두의 연구는 1913년 김성목 선생에 의해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이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배타성에 근거하였다. 즉,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용법이 한국에 존재하고 이것이 차자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借字는 吏讀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평양 석각문에 보이는 中, 之, 節 등도 漢字와 다르기 때문에 吏讀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배타성에 입각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정광(2003)이다. 초기 이두의 발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던 자료는 광개토태왕비문이다. 정광(2003: 65~6)은 비문에 보이는 ‘於’를 목적격 조사 ‘-을’에 대응시켰다. 王於忽本. 이것은 이준석(1998: 99)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於’를 訓借하여 목적격으로 쓰인다는 언급은 양주동(1965/1997: 300)에도 보인다⁴⁾.

그런데 한국의 木簡과 중국의 簡牘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은 初期 吏讀가 중국에서도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되었다.⁵⁾ 석각문에 보이는 ‘-中, -之, -節’ 등은 고구려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⁶⁾ 예를 들어, 秦에도 之가 있었다. 今且令人案行之(雲夢睡虎地 秦簡). 以其價多者罪之(雲夢睡虎地 秦簡).

중국과 달라야만 吏讀인가? 배타성에 근거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구려의 이두는 더 이상 이두가 아니다.

1) 국어사의 시기 구분에 있어서 일반 역사학의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가 이어지는 7세기 후반, 8세기 무렵에 이미 서구에서는 서로마제국이 붕괴되고 고대시대에서 중세적 질서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때부터 사라센 제국이 중동지역에서 일어났던 시기다. 당나라도 이 무렵에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보다 한참 뒤인 13세기는 이미 세계사의 흐름에서 중세시대도 어느 정도 마무리해 가면서 근대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시기였다.

2) 이때의 中은 당시에 ‘西’로 誤讀하였다.

3) 여기에 대해서 李基文(1981: 65~66)을 參照할 수 있다.

4) 양주동 선생은 이것을 中世國語의 例로만 說明했을뿐, 위의 碑文과 關聯해서는 何等의 論議도 없었다는 事實이다. 이에 比해 李浚碩(1998: 99~103)은 佛經資料에서 問題의 解答을 찾으려 했다. 龍樹가 著述하고 鳩摩羅什이 西紀 409년에 翻譯한 中論에서, 梵語 原文의 屬格이 意味上 對格으로 使用되었을 때, 漢文에서는 이것이 ‘於’로 翻譯된다는 事實에 着眼했다. 生生之所生 生於彼本生(中論). 李浚碩(1998)에 따르면 ‘不能作於業(中論)’처럼 梵語佛經 原文의 行爲名詞 ‘業’이 對格일 때도 漢文에서는 그 標識가 ‘於’였다는 것이다.

5) 여기에 대해서는 金秉駿(2009), 權仁澣(2010)을 參照.

6) 여기에 대해서는 金秉駿(2009)를 參照.

이것은 최만리의 반대상소를 조희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세종은 최만리에게 한글과 이두는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 점에서 같은 것인데, ‘신하인 자네가 왜 이두는 찬성하고 한글은 반대하니 자네는 도대체 어느 나라 신하인가?’하고 물었다.

최만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두가 한글처럼, 한자와는 다른 우리의 문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문자를 빌려서 썼다는 점에서 한글과 다르다는 것이다.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隸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義.

여기에서 우리는 ‘然皆借中國通行之字’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이두 연구자들은 이두를 배타성에 근거하여 연구해 온 경향이 있었다. 중국과 다른 것, 즉 중국에서는 쓰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것만이 吏讀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용되던 것을 빌려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면, 초기의 이두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김병준(2009)의 예문들은 고구려에 이두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의 발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2. 삼국시대 전기

2.1. 한자의 수용

이두의 발생은 한자가 한반도에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물론 한반도에서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의 문자를 가져다가 한국에 移植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가령, 인도네시아 짜아짜아 족의 예처럼, 한글이 그 사회에서 전혀 通行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移植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최만리 상소문에 보이는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를 음미해 보면, 이두는 移植과 다르다.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들을 빌려왔다는 것’인데, ‘語助’라는 것은 한자로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민족이 한자로 소통을 하는 바탕 위에 이두라는 借字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문자 생활을 영위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두가 한자와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이두는 한자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漢字가 언제부터 한반도에 전래되었고, 한민족이 한자를 주체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전에 ‘武王勝殷繼公子祿父釋箕子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尙書大傳)’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원전 12세기(무왕 16년, 기원전 1119년)에 기자에 의해서 조선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漢書의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 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에 의하면 낙랑조선에서 명문화 한 법률을 시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낙랑조선이 성문법에 근거한 문명사회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자의 실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낙랑조선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게다가 법률이 한자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의 주체가 土着민이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歸化人들로 局限되어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다⁷⁾.

7) 한자로 된 법률은 귀화인들만 알 수 있었고 토착민들이 모르더라도 귀화인들이 지배계층이었다면 명문화된 법

문헌 기록보다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고고학적인 유물들이다. 기원전 3~4세기에 통용 되었던 燕나라의 明刀錢, 그리고 기원전 3세기 무렵의 秦戈가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出土 되었다.⁸⁾ 明刀錢이나 秦戈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것으로 한반도에 한자가 전래된 시기는,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기원전 3세기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 한반도에서 한자가 통용은 되었지만 명도전이나 진과의 제작자가 토착민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중국인들의 주문제작을 맡은 장인 중에 토착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의 주체적인 사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없다⁹⁾.

토착민들이 한자를 주체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더하는 구체적인 유물은 기원전 1세기 무렵쯤에야 나타난다. 창원시 茶戶里의 목관묘에서 毛筆과 削刀가 출토되었다¹⁰⁾. 물론, 여기에서 붓이라는 부장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제사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시에는 붓을 귀중품으로 생각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묻어두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붓의 길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붓은 길이가 약 23cm이다. 漢의 도량형에 따르면 이것은 1척에 해당하는 길이이다.¹¹⁾ 이에 따라 당시에 실제로 쓰였던 붓의 길이가 얼마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後漢의 王充이 기록한 것이다. 知能之人須三寸之舌一尺之筆(論衡). ‘일척지필’은 당시의 식자들이 사용했던 붓을 말한다. 이것은 다호리에서 출토된 붓의 길이와 일치한다.

길이의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면, 다호리의 붓은 실용적인 붓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削刀가 있었다는 것은 茶戶里 毛筆의 사용 시기가 後漢 蔡倫紙 이전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에 당시의 書寫 材料는 木簡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원전 1세기 무렵 한반도에서는 목간에 한자를 붓으로 서사하는 문자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것으로 우리 조상이 漢字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木簡에 서사된 한문 텍스트가 발견되지 않았고, 붓과 함께 削刀가 있었지만 삭설(削屑, 삭도로 깎아낸 종이 부스러기)이 確認되지 않았다¹²⁾.

더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붓의 사용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주는 유물이나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한반도의 남부인 창원에서 붓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사용 주체가 韓國人인지, 中國人인지 혹은 日本人인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한자의 사용 주체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삼국지에 보이는 ‘濊民作之’에 관한 기록이다.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漢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三國志 魏志東夷傳, 東沃沮條). 漢이 東部都尉를 두어 沃沮를 관할했지만 土着民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都尉를 없애고 沃沮의 渠帥(읍락의 우두머리)를 縣侯로 삼았다는 것이다.

물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의 존재가 그 자체가 토착민들의 한자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대 문헌에 보이는 기록만으로 韓民族의 漢字受容史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8) 리득춘(1992: 11~12)를 참조.

9) 하나의 상표이거나 아이콘 정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0) 1988년에 발굴되었는데 붓대에는 漆이 발려져 있었고 兩端에는 毛筆이 附着되어 있었다.

11) 국립중앙박물관 편(2001: 248)을 참조.

12) 나무에 새겨진 글을 지우고 그 나무를 다시 쓰고자 할 때에 칼로 붓글씨를 깎아내었다. 木簡이 당시의 공책이라면 削刀는 일종의 지우개였다.

主簿는 官名, 文書, 帳簿 등을 관리하는 직책이다¹³⁾. 이것을 濊民이 맡았다는 것은, 東沃沮의 濊民이 文書를 作成하고 帳簿를 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가 光武帝 卽位 6年으로 서기 30년이므로 우리 조상들이 최소한 1세기부터는 스스로 漢字를 사용하여 文書를 작성하고 帳簿를 정리할 수 있었다.

2.2. 이두의 발생

1세기 무렵부터 한자를 주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한민족은 이 시기에 중국에서 통용하던 문자들을 차용하여 문자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삼국시대 전기인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문자 유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두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기원전 1세기의 문자 유물로는 최근 평양시 낙랑구역의 목곽묘에서 출토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多少’로 시작하는 목간이 있다. 초원4년은 BC 45년으로 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지 63년이 경과한 시기로 기원전 한반도의 호구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문자 자료다.

이것은 당시의 낙랑군이 漢의 문서행정에 따라 통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당시의 한반도 지역에 다양한 지명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주목되지만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이두의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 最古의 비문인 元和10年(기원 84년)의 粘蟬縣 神祠碑를 들 수 있다. ‘○○○年四月戊午粘蟬長○○/○建丞屬國會○○○○○/ ○神祠刻石辭曰/ ○平山君德配代崇承天○○/○佑粘蟬興甘風雨惠閩土田/○○壽考五穀豐成盜賊不起/○○蠶臧出入吉利感受神光’. 아직 완전하게 판독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神에게 祭祀를 지내고 祈願文을 刻石한 것이다. 風雨가 順調로워서 土地를 潤澤하게 하고, 五穀을 풍성하게 하되, 盜賊이 일지 않도록 기원한 것으로, 드나드는 吉利에게 神의 恩寵을 내려달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이두의 흔적은 없다¹⁴⁾.

이두의 기원적인 모습을 탐색할 수 있는 자료는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태봉리 1호분에서 1914년에 출토된 塼文으로 유물 연대는 348년으로 추정된다¹⁵⁾. 父母既好且堅典齋記之.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¹⁶⁾. 판독문에 대한 해독이 國立中央博物館 編(2001)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판독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모인 기호차와 견전재가 기록한다(父母 既好且 堅典齋 記之) 천생소인이 공양하는 군자 천인이 지은 벽돌로 장례를 치른다(天生 小人 供養 君子 千人 造 塼以 葬)

위의 문장은 한문으로 보아도 해석에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위의 문장을 한국어 문장의 어순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은 ‘記之’의 ‘之’이다. 이것은

13) 자세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1987: 265)를 참조할 수 있다.

14) 판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편(2001: 66)을 참조할 수 있다. 거기에 해석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고대 낙랑 시대의 관리로 짐작되는 ‘길리’라는 단어가 흥미롭다. 후대의 捷解新語에서 나타나는 ‘日吉利’에서 그 용례의 흔적을 비교해 봄직하다.

15) 國立中央博物館 編(2001: 178)을 참조.

16) 판독문은 “父母既好且堅典齋記之 天生小人供養君子天人造塼以葬[國立中央博物館 編(2001: 181)]인데 이에 따르면 들췌 행의 아홉째 글자는 ‘天’이다. 이것은 再考를 要한다. 天生의 天과 대조해 보면 아래 획이 大자로 양옆으로 갈라져 있지만 ‘군자천인’에 보이는 ‘천’은 十자 모양으로 아래 획이 수직으로만 내려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의 ‘천’을 ‘千’으로 판독한다.

한국어의 평서형 종결형 어미 ‘-다’의 기능에 대응한다.

물론, 이런 식의 之라고 해서 모두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한문에서도 가능한 구절이다. 가령, 詩經의 樛木에 나오는 ‘樂只君子(즐거운 군자여) 福履綏之(복됨으로 편안하다)’의 예를 보자면, 이때의 ‘之’는 허사로 쓰여서 종결어미의 역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詩經에 나오는 ‘之’의 용법은 시가에 쓰임으로써 운율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博銘의 산문과 그 쓰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만리의 상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두란, 借中國通行之字로 施於語助인 것이다. 즉, 중국에서 통행하던 것을 빌려서 어조, 즉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父母 既好且 堅典齋 記之에서 之를 빼더라도 通行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之를 부가함은 語助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두 발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樂浪博銘에 보이는 語助의 ‘之’가 5세기 고구려의 문자자료에 계승되었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德興里古墳 墨書의 ‘且食鹽鼓食一椋記之’와 ‘曹職吏故銘記之’에서 낙랑의 之가 고구려로 계승되었음을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고구려 이두의 출발점으로 잡기는 어렵다. 덕흥리 고분의 주인이 歸化人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도 이두식이 되기보다는 중국식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歸化人의 文法이 고구려인에게도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廣開土王碑文의 ‘制令守墓之’가 보이며 平壤石刻文에서도 ‘西北行涉之’의 ‘-之’가 확인된다. 中原高句麗碑에서는 한 텍스트에서 용례가 무려 3번이나 나타난다. 東來之. 建立處用者賜之. 教跪營之.

이것이 고구려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고구려인의 문법은 신라에도 전파되었다. 신라의 咸安 城山山城出土一面墨書木簡 281番은 6세기 중반 자료로 여기에 보이는 ‘甞鐵十之’를 해석하면 ‘조철이 열 개다’이다¹⁷⁾. 비슷한 시기의 丹陽赤城碑에 보이는 ‘습五人之’도 널리 알려진 예다.

만일 이두를 배타성에 근거하여 정의한다면, 위의 예들은 모두 이두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중시한다.

최만리의 논의가 이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소산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두는 借中國通行之字로 施於語助다. 위의 之들은 語助의 之이면서 중국에서 통행하던 문자다. 그리고 이것들은 한국어 표기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후대에도 계승되었다. 따라서 이두의 발생에 관한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전기의 후반 무렵에 기원적인 모습의 이두가 발생하여 이것이 5세기 고구려로 계승되었다.

17)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욱(2007나: 149)를 參照.

3. 삼국시대 후기

3.1. 고구려의 이두

초기 고구려의 이두를 논할 때에 광개토왕비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買人制令守墓之. 이것을 해석하면 ‘買人是 制令으로 守墓한다’는 뜻이다. 이때의 ‘之’를 漢文으로 풀이하면 語塞하므로 文終結 機能의 吏讀로 보자는 것이었다¹⁸⁾.

之뿐만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평양성 석각문의 ‘丙戌十二月中 漢城下後部小兄 文達節 自此西北行涉之.’에 보이는 中, 節 등도 고구려 이두다. 慶州 瑞鳳冢에서 出土된 銘文銀盒의 ‘三月中太王敬造’의 中도 마찬가지다. 李基文(1981: 70)에서 中原高句麗碑文에 나오는 ‘五月中’의 ‘中’도 吏讀라 했다¹⁹⁾. 五月中 高麗太王祖王令 新羅寐錦 世世爲願 如兄如弟 上下相和 守天 東來之²⁰⁾. 이러한 中의 용법은 고구려에서 백제, 신라로 전파되었다²¹⁾.

금석문에 보이는 之, 中, 節 외에 문헌 자료에 보이는 예들은 이두의 목록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고구려어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은 문헌 자료에 의한 것이었다. 삼국사기 권 37에 ‘買忽一云水城’처럼, 音讀과 釋讀이 대응하는 자료들이 있다. 이때의 水城은 석독자인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한자를 차용한 吏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두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힌다. 한자에 대응하는 문맥에서는 국어를 표기하는 차용 문자의 뜻으로 쓰인다. 한문에 대응하는 문맥에서는 이두로 표기된 문장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것은 鄉札이 문자이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문장으로 쓰이는 것과 같다.

균여전의 최행귀 서문에 보면, ‘鄉札似梵書連布 彼土難諳 使梁宋珠璣 數托東流之水 秦韓錦繡 希隨西傳之星’이 있다. 여기에서 향찰은 금수에 대응하는데 이때의 금수는 문장을 비유한 것이다. 향찰이 문자가 아닌 문장의 의미로 쓰일 때에 굳이 향찰문이라고 하지 않아도 통용되듯이, 이두도 굳이 이두문이라 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향찰의 1차적인 의미가 우리나라의 문자이듯이, 이두의 1차적 의미도 문자다. 그렇다면 ‘水城’이 비록 문장은 아니더라도 한자를 빌어서 우리말, 즉 고구려어를 표기했다는 점에서는 이두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물론 차자표기법을 상위의 범주로 두고, 그 아래에 고유명사 표기,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이두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之, 中, 節과 같은 문법형태뿐만 아니라 水城과 같은 어휘형태도 이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것은 ‘然皆借中國通行之字’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도 부합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鄉札도 吏讀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학계의 통설은 구결, 향찰, 이두를 구분한다. 이해를 위한 것이 구결이요 표현을 위한 것이 향찰과 이두인데 문학적인

18) 李基文(1981: 70)을 參照.

19) 거기에서 李基文 先生은 碑文의 ‘五月中’이, 銀盒孟銘의 ‘三月中’과 高句麗城石刻文의 ‘十二月中’에 이은 세 번째 발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處格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中’의 用法은 北魏, 高句麗, 新羅, 日本에 걸쳐서 發見된다 하였다.

20) 해석하자면, “오월에 고려태왕(문자왕)의 조왕(장수왕)이 명하였다. 신라 매금(왕)이 世世로 願하되 兄弟처럼 위아래가 서로 和하자고 하므로 守天하기(약속을 지키기) 위해 東으로 왔다.”로 할 수 있다.

21) 부여의 雙北里 ‘佐官貸食記’ 木簡의 ‘戊寅年 六月中’과 伏岩里 木簡의 ‘三月中’에 보이는 ‘中’도 고구려의 이두 中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

글에는 향찰이, 비문학적인 글에는 이두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구분법이 때로는 모호해질 때도 있다. 吏讀와 口訣, 鄉札은 별개의 文字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지만 이것이 ‘現代的 偏見’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端緒가 잡혔다²²⁾. 月城 垓子の 목간에서 釋讀口訣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字形인 ‘1 [다]’가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吏讀와 口訣이 混用된 最古의 事例다. 釋迦塔墨書紙片의 吏讀에서도 口訣의 ‘ㅅ [며], ㅈ [아]’가 吏讀와 함께 쓰였다²³⁾. 傳仁容寺址 木簡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²⁴⁾.

필자의 관점에서는 구결도 이두로 포섭할 수 있다. 최만리 반대상소에 보이는 이두의 설명은 구결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어조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구결이다. 설총 이전에도 이두가 있었으니, 최만리의 기록에 근거한다면 설총이 발명한 것이 구결이었을 것이다. 다만 당시 학자들의 인식에서 구결과 이두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겠다.

이에 따르면 이두의 범주는 매우 넓다.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15세기까지 한반도에서 통용되었던 문자는 한자, 이두, 한글이었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런 뜻으로 이두의 범주를 설정한다. 물론 기존의 용어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좀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좁은 의미에서 이두, 구결, 향찰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으며 또한 고유명사 표기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한에서 이두의 범위에 고유명사가 표기법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이두에는 금석문에 보이는 자료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유명사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은 알다시피 경덕왕 16년인 757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삼국시대 이후의 변개이므로 고구려의 지명표기 혹은 관등, 관직 표기 등이 삼국시대의 이두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석독 표기의 전통이 고구려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1차 자료가 있다. 5世紀 高句麗 遺跡址 중에는 牟頭婁 무덤이 있다. 무덤의 천장에 800字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문자 자료가 있다. 1935년, 集安縣 中學校의 王永璘 교사가 무덤안 글씨의 존재를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무덤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廣開土王碑文과 흡사하고 묘자의 조성 연대도 5세기 중반이다.²⁵⁾ 여기에는 놀랍게도, “國罌上大開土地好太聖王(44~45行)”이란 구절이 나온다²⁶⁾. 광개토왕 비문의 ‘國罌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동일한 인명이 모두루 묘지에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5세기 고구려의 고유명사에 대한 ‘異表記’의 예를 1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뜻한다.

‘國罌上大開土地好太聖王’을 광개토왕비문의 ‘國罌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대조하면 ‘廣開土’가 ‘太開土’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껏 ‘廣開土王’으로 알고 있던 역사적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도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廣’과 ‘大’가 같은 소리값을 지녔다는 사실과,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석독했음을

22)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욱(2007)과 정재영(2008)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3)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재(2009가: 123)을 참조.

24) 거기에는 鄉歌에 보이는 ‘右如’가 吏讀資料에 함께 쓰였다.

25) 여기에 대해서는 韓國歷史硏究會 編(2004: 36~42)를 參照.

26) 尹善泰 教授(東國大)가 이 사실을 筆者에게 일깨워 주었다. 尹教授에게 깊은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

의미한다²⁷). 문제는 ‘廣’과 ‘大’의 소리값을 재구하는 것이다. ‘廣, 大’는 동일인명 표기이므로 음가도 같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淵蓋蘇文：伊梨柯須彌’에서 이때의 ‘淵’이 ‘*iri’로 식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²⁸). 당시의 고구려인들은 ‘*han/한’을 표기하기 위해, ‘廣’이나 ‘大’를 썼을 것이다²⁹). ‘廣’이나 ‘大’字를 借字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異表記 현상이 나타날 리 없다³⁰).

3.2. 백제의 이두

4세기 후반 무렵, 근초고왕 때의 기록으로 ‘古記云 百濟開國以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何許人也(삼국사기 권20)’라는 것이 있다. 4세기 후반에 이미 ‘書記’라는 기록이 있었으니, 백제가 적어도 신라보다는 문자문화가 앞섰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백제의 이두 연구도 전통적으로는 문헌 자료에 근거하였다. 삼국사기의 지리지에 보이는 지명이 중요자료인데 이를테면 ‘石山縣本百濟珍惡山縣’에서 ‘石：珍惡’이 ‘석독：음독’으로 대응한다. 이때의 石은 ‘*torak’으로 再構할 수 있다. ‘珍惡’도 한자를 빌려서 백제어를 표기한 것이므로 필자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이두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현전하는 문헌 자료들은 삼국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므로, 그것들이 삼국시대의 이두였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삼국시대의 이두였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백제의 1차 자료는 많지 않다. 1971년 7월 공주에서 출토된 武寧王陵 지석문에서 백제 이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全文은 7행 53자로 이루어져 있으며³¹) 字徑은 평균 2.5cm 정도이다.

잘 다듬어진 平板 磨石의 銘文에는 南朝風의 流麗優雅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³²). 寧東大將軍 百濟 斯麻王 年 六十二 歲³³) 癸卯年 五月 丙戌朔 七日 壬辰 崩 到乙巳年八月癸酉朔 十二日甲申安厝登冠大墓立志如左 印³⁴). 마지막의 印은 문장의 끝마침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27) ‘國罌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나 ‘國罌上大開土地好太聖王’이 音讀만으로 이루어졌었다면 이런 異表記 現象은 나타날 수 없다.

28) 그러나 우리가 歷史教科書를 통해서 알고 있는 淵蓋蘇文은 [연개소문]으로 發音하기보다는 [이리개소문]이라 하는 것이 實際에 더 가까운 것이다.

29) 百濟의 古地名인 ‘廣津’은 ‘漢江의 나루’다. ‘廣’은 漢江의 ‘漢’에 對應한다. 이에 따르면, ‘廣’을 ‘*han’으로 再構할 수 있다.[都守熙(2005: 37)를 參照]. 廣開土의 ‘廣’도 ‘*han’으로 再構된다. ‘大’는 ‘大舍·韓舍’의 對應例를 考慮할 때에 그 音價 또한, ‘*han’으로 推定된다. 다시 말해서, ‘廣’과 ‘大’의 音價는 모두 ‘*han’이다.

30) ‘*han/한’이 ‘廣’과 ‘大’로써 그 異表記를 보인 것이 國語史 研究를 위해서는 天幸이 아닐 수 없다. 비문과 무덤 글에서 각각 ‘廣’과 ‘大’로 表記될 確率이 높지 않다. 萬一, 둘 다 廣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大로만 表記되었다면, 우리는 비문과 무덤글에서 釋讀의 證據를 捕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廣：大’는 ‘大：韓’과 마찬가지로 同音이었다는 事實은 韓國 固有의 釋讀表記 起源이 5世紀 高句麗였음을 意味한다. 우리가 歷史教科書를 통해서 알고 있는 ‘廣開土王’도 [광개토왕]보다는 [한개토왕]이라 부르는 것이 實際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31) 성주탁(1971: 210)에는 52字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맨 마지막 글자인 ‘印’字를 빠뜨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맨 마지막 글자는 김영옥(2003)에서 최초로 판독되었다.

32) 誌石의 書體에 對한 講評은 任昌淳(1983: 40)을 參照할 수 있다. 誌石의 字形이 400년대의 北魏 資料와 比較하면 南朝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北朝系라는 主張도 있다(佐竹保子, 1984).

33) 여기에서 注目할 만한 句節은 ‘年 六十二 歲’이다. 이것은 韓國語의 數詞 構文과 그 構造가 一致한다. 韓國語의 典型的인 數詞句는 ‘普通名詞+數冠形詞+單位名詞’로 이루어진다. ‘年 六十二 歲’는 그 構造가 ‘年(나이/普通名詞) + 六十二(육십이/數冠形詞) + 歲(세/單位名詞)’로 韓國語의 수사구와 그 구조가 같다.

일종의 문장부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방법은 백제식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이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여기에서 ‘年六十二歲’도 百濟吏讀다. 대개 중국식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春秋 六十一’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예들은 4세기 경 東晉의 王興之夫婦墓誌나 5세기 경 남조 宋의 劉懷民墓誌, 6세기경 북위의 元羽墓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⁵⁾. 따라서 이 지식문은 전반적으로 한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백제 이두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문과 이두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한문은 한문이요 이두는 이두라는 이분법에 빠지기 쉽다. 그런 까닭에 한문과 이두가 섞여있는 혼용문이 초기 백제 이두의 특징이라는 필자의 새로운 주장(김영옥: 2003)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³⁶⁾.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치 한글 문장 속에도 한자가 섞일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문장이 한문이 아닌, 한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한자가 존재할 수 있듯이, 지식문 전체가 한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두가 섞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백제 이두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습字를 들 수 있다. 扶餘陵寺址에서 출토된 百濟陶器에는 文字資料다. 6세기경의 문자자료로 보이는 이것은 ‘係文作元馱’으로 판독된다³⁷⁾.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글자에 눈여겨 볼 이유가 있다.

이것은 瓦와 天이 합쳐진 文字다. 문장을 해석하자면 ‘계문이 지은 元馱’일 터인데, 瓦와 天의 습字가 무슨 뜻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전체 문장이 미해독의 상태에 있다. ‘瓦’란 본래 기와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이 새겨진 유물은 瓦가 아니라 질그릇이다. 그런 까닭에 이때의 ‘瓦’를 기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瓦’에는 ‘陶’와 마찬가지로 ‘흙을 구운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는데 옛날에 백제 지역에서는 옹기로 관을 만든 적이 있다.

이것을 ‘甕棺’이라 불렀다. 지금도 전라도 지역에서 옹관묘 유적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陶棺이라고도 했지만 瓦棺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이런 사안들을 감안하면 ‘瓦’자를 질그릇에 새긴 이유가 어느 정도 해명이 될 듯하다.

‘瓦+天’은 보통의 瓦와는 달리, 음식을 저장하거나 물 또는 술을 담은 옹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天’이라는 글자의 뜻은 ‘元’ 하고도 통한다. ‘으뜸의, 뛰어난, 자연의’ 등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³⁸⁾. 係文은 질그릇을 디자인하는 百濟匠人이었을 것이다. ‘係文作元馱(瓦+天)’의 元도 ‘으뜸, 원래, 비롯함’ 따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³⁹⁾ 능사에서 출토된 이것은 아마도 ‘계문이라는 장인이 만든 원조 질그릇’이라는 뜻으

34)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영동 대장군인 백제 시마왕은 나이 예순 두 살로 계묘년 오월 병술삭 칠일 임진에 봉하였다. 을사년 팔월 계유삭 십이일 갑신에 이르러 등관대묘에 안초하니 입지는 여좌하다. 끝(印).

35) 왕흥부부 묘지는 南京市文物管理委員會 所藏이고 유희민 묘지 南朝 宋, 山東城 益都, 464年으로 원우 묘지(북위, 501년, 洛陽)와 함께 北京中國歷史博物館 所藏이다.

36) 권인한(2006, 2008나)를 참조.

37) 국립부여박물관(2002: 60)을 참조.

38) 天이 夫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馱’는 문자 그대로 ‘남자 옹기장이다’. 이에 따라, ‘係文作元□’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계문이 지었다. 원래 남자 옹기장이다.’일 터이다. 계문이 남자 옹기장이임을 강조한 것처럼 되어서 문장이 옹색해진다.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다. 기와에 암수가 있듯이, 질그릇 종류 중에도 ‘암 질그릇’과 ‘수질그릇’ 등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百濟用器文化에서 그러한 구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證據가 없는 한, ‘瓦+夫’가 ‘남성용 질그릇’이라는 주장은 상상에 머문다.

39) ‘元’이라는 말은 그것을 모방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마도 계문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도자기들이 당시에 유행했었을 것이다. 백제 시대에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원조 도자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

로 짐작된다⁴⁰⁾.

木簡에서도 合字가 확인된다. 扶餘博物館에서 2002년에 행해진 陵山里寺址의 8차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출토된 木簡으로, 길이 44cm, 각 면의 폭이 2cm인 四面木簡이 있다. 이 글의 사진은 4면 중, 제 3면으로 여기에 서사된 墨書는 다음과 같이 판독된다. 犛猪耳其身者如黑也.

여기에서 ‘犛’가 어떤 문자인지를 밝히는 것이 해독의 관건이다. 그러나 필자의 과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글자가 중국 목간이나 일본 목간에서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字典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유일한 대안은 이것을 백제인의 ‘合字’라고 간주하는 것뿐이다. 사실 이두 중에 𪛗, 𪛘, 𪛙 따위의 합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들은 대체로 두 글자가 세로로 연결되어 합쳐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백제의 𪛗, 犛 등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犛’의 풀과 義는 문맥에 의존하여 추리한다. ‘犛’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猪耳’인데 이것은 人名이다. 이 사람이 백제의 하급 관리였다는 역사학자의 해석을 받아들여서⁴¹⁾ 필자는 ‘犛’를 [리]로 읽고 그 뜻은 ‘작은 관리’로 하여, ‘犛’를 ‘작은 관리 리’자로 파악하고자 한다.

3.3. 신라의 이두

고구려와 백제의 이두가 주로 문자, 문법형태 혹은 어휘의 차원에 머물렀다면 신라의 이두는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에 이르러 그 표기법이 문장의 수준으로 향상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문장을 완전하게 표기할 수 있는 수준의 이두는 신라인들이 삼국시대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나 종결어미를 표현하는 수준의 표기는 한문의 허사, 즉 어조사나 종결사의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이두로 선어말어미를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을 고안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어의 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표기하는 한자도 없다.

그런 점에서 선어말어미 표기법은 조사, 어말어미 등의 표기법과 차원이 다르다. 선어말어미의 표기법을 신라인이 고안했다는 것은 신라의 이두가 중국의 한자와는 기능면에서 완전히 결별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이두나 백제의 이두는 한문의 문법과 차이를 보이며 한국어를 표기했다는 점에서 한자와 구별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여전히 한문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즉 한문으로도 읽히고 국어도 읽히는 이중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중성은, 한자와 한글과 비교할 때에, 이들 두 문자가 지니고 있지 않은 이두의 고유 속성이다.

그런데, 7세기의 신라인들은 여기에서 나아가 이두를 그 기능면에서 한자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표현해 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발명은 신라의 이두를 더욱 이두답게 만들었다.

다. 그리하여 계문이라는 장인이 만든 도자기에 元이라는 관형어가 부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당시에 유명한 도기 디자이너였을 것이다.

40) 이러한 ‘𪛗’의 용례가 중국에는 없다. 백제인의 造字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의 창안이야말로 漢字 土着化의 한 양상이다. 기존의 한자인 瓦와 天을 이용하여 백제인의 문화 상황에 어울리는 새로운 문자를 합성해 낸 것이 아닌가 한다.

41)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선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가르침이 있었다.

금석문이나 목간 등, 1차 자료에 보이는 신라의 이두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다소 늦은 6세기부터 확인이 된다. 유명한 예로는 임신서기석(552년 추정)⁴²⁾을 들 수 있는데 天前誓, 今自三年以後와 같이 국어어순으로 표현된 것을 비롯하여 可容行誓之의 之와, 그리고 之 다음의 空白이 있는데, 이 공백도 문장 구두점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국어 표기법의 한 장치다.

신라 이두에서 中, 之를 많이 보는데 이것은 고구려 이두의 영향일 것이다. 경주의 서봉총에서 발견된 장수왕 3년(451년)의 은함에 中이 있음이 그것의 한 증거다.

법흥왕 26년(539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하는 川前里書石에 ‘中’이 있다. ‘甲寅大王寺中安藏許作, 乙丑年九月中沙喙部干西, 辛亥年九月中’. 明活山城作城碑(551년)에도 辛未年十一月中作城也, 郡中上人烏大谷 등의 예가 있으며, 南山新城碑(591년) 등 여러 비문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금석문에 中이 널리 쓰였으며 목간 자료에도 中이 보인다. 經中入用思買白不離紙一二个(149호 목간).

단양적성비의 ‘合五人之(합하여 다섯 사람이다)’에서 종결어미 ‘-之’가 확인된다. 이러한 지의 용법도 中과 마찬가지로 5세기 고구려 자료에서 확인된다. 6세기 중엽 자료로 추정되는 함안목간에서도 ‘殂鐵十之’처럼 之가 보이고, 목간 149호에도 ‘牒垂賜教在之’처럼 之가 확인된다.

그러나 신라이두의 독창성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선어말 어미 표기와 관련된 것이다. 경주 皇南洞에서 출토된 목간 281번의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⁴³⁾. ‘(앞면) 五月廿六日椽食○內之下椽有……’⁴⁴⁾. 이것은 7세기 자료로 추정되는데 해석을 하자면 ‘5월 26일 창고에 먹을 것(식량)을 ○하였다.’이다. 이때의 ‘內’는 중세국어의 ‘-ㄴ-’에 소급할 만하다.⁴⁵⁾

다음은 월성해자 목간 149호의 全文이다. 大鳥知郎足下万行白 | 經中入用思買白不離紙一二个 牒垂賜教在之 後事者命盡 使內. 여기에서 教在之의 在, 使內의 內는 선어말 어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때의 在, 內는 그것의 문법적 기능이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러한 이두의 창안은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인의 창안이다.

삼국시대 후기의 자료로 보이는 월성해자 목간은 이두의 수준이 문법형태나 어휘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문장 차원까지 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之의 초서체가 더욱 변형이 되어 ‘1’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석독 구결 자료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그 음가는 /다/이다.

‘1’의 존재는 신라의 이두가 7세기에 이르러 이미 한자의 수준을 넘어서, 독창적인 신라인의 문자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자를 변형하는 원리가 일본의 히라가나와 동일하며 문자의 음가도 완전히 한국식으로 바뀌었음을 본다.

42) 이기문(2008: 62)를 참조.

43) 281番 木簡은 소나무로 만든 것인데, 길이가 17.5cm, 폭 2.0cm, 두께 0.6cm이고 아랫부분이 破損되어서 全體內容은 알 길이 없다. 墨書된 것이 판독은 되었지만 해석이 없고 判讀文에 대한 어학적 분석도 없었다.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編 2006: 200~201).

44) 목간의 중간이 닳아버린 까닭에, ○의 字를 판독할 수 없지만 문맥으로 보아 ○은 食量 在庫 調査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內之’ 다음에는 자간 空白이 있고 이어서 ‘下椽有’이다.

45)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그 기능은 直說法이다. 이것은 ‘五月廿六日椽食○內之’라는 문장의 내용이 실제로 행해진 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가설적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나와서 좀더 치밀하게 논증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內’가 ‘納’(들이다)을 의미하는 타동사로 쓰였다는 해석도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 설정한 이두의 기본적 개념은 최만리의 상소문에 기록된 ‘然皆借中國通行之字施於語助’에 근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두의 1차적 의미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借字다. 국어사 연구를 위한 문자 자료는 이제 3가지로 압축된다. 한자, 이두, 한글이 그것이다. 한자는 한문과 연결되고 한글은 국어와 연결되며 이두는 한문과 국어에 걸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이두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한자로 기록된 삼국시대의 문자 자료 중에서 국어 표현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이두의 범주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

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700여년에 걸친 시기로 4세기 고구려에 의한 낙랑의 통합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漢의 문서행정에 의한 지배체제가 존속했던 삼국시대 전기에 이두가 싹트기 시작했다. 삼국시대 후기가 시작되는 5세기 무렵 고구려에서 之, 中, 節 등이 생겨났다. 어휘 표기를 위한 이두들도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여 석독이나 음독에 의한 지명, 인명, 관명 등의 표기가 개발되었다. 백제에서는 중국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合字를 만들어 냈으며 語順에 의한 국어표기 방식도 고안되었다.

이두가 문장 차원의 표기로 발전한 것은 신라인의 독창이다. 6세기에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의 영향으로 之, 中 등 조사, 어말어미 표기법과 어순에 의한 국어표기법 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후기에서 통일신라기로 넘어가는 7세기에 이르러서는 선어말어미 표기를 고안하고, 신라식으로 변형된 문자들도 발명하였다. 신라인의 이두가 기능적인 면과 형태적인 면에서 한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으로써, 신라어의 표현과 전달에 있어서 신라인들은 보다 자유롭고 풍성한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參 考 論 著

- 高句麗研究會 編(1999), 廣開土好泰王碑 研究 100年, 학연문화사: 서울.
高句麗研究會 編(2000), 中原高句麗碑 研究, 학연문화사: 서울.
口訣學會 編(2005), 漢文讀法과 아시아의 文字, 太學社.
國立慶州博物館(2002), 《文字로 본 新羅》, 서울: 學研文化社.
國立夫餘博物館 編(2002), 《百濟의 文字》, 國立夫餘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編(2001), 낙랑,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2004), 《韓國의 古代木簡》, 서울: 藝脈出版社.
權仁瀚(2006), 武寧王陵 出土 銘文들에 대한 語學的 考察, 口訣研究17: 91~128면.
權仁瀚(2007), 正倉院藏 ‘第二新羅文書’의 正解를 위하여, 口訣研究18: 141~172면.
權仁瀚(2008가), 함안 성산산성 목간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 史林31號:31~62면.
權仁瀚(2008나), 백제식 속한문을 찾아서, 口訣學會 月例研究發表會 發表文(2008.12.13).
權仁瀚(2010), 목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문자문화, 韓國木簡學會 發表文(2010.11.19).
권택장(2010), 慶州 傳仁容寺址와 ‘大龍’ 木簡, 韓國木簡學會 發表文(2010. 여름).

- 金秉駿(2008),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 木簡과 文字 創刊號: 139~186면.
- 金秉駿(2009), 樂浪의 文字生活, 《古代文字資料로 본 동아시아 文化 交流와 疏通》, 東北亞歷史財團, 35~51면.
- 金完鎭(2005), 국어학 10년의 앞날을 바라본다,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향후 10년의 지형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엮음, 太學社, 15~27면.
- 金永旭(2003), 百濟 吏讀에 對하여, 口訣研究11: 125~151면.
- 金永旭(2004), 判比量論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12: 81~98면.
- 金永旭(2007), 古代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 口訣研究19: 171~189면.
- 金永旭(2008), 西河原森ノ內 유적지의 ‘椽直’ 목간에 대한 어학적 고찰, 木簡과 文字 創刊號: 213~232면.
- 金永旭(2009), 和化漢文의 起源에 관한 一考察, 口訣研究22: 179~195 면.
- 南豐鉉(1999가),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研究. 太學社.
- 南豐鉉(1999나),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太學社.
- 南豐鉉(2000가), 吏讀研究, 太學社: 서울.
- 南豐鉉(2000나), 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그 吏讀의 性格, 中原高句麗碑研究, 학연문화사.
- 南豐鉉(2002), 新羅時代 口訣의 再構를 위하여, 口訣研究8: 77~109면.
- 南豐鉉(2006), 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發達, 口訣研究16: 5~26면.
- 都守熙(2005), 百濟語研究, 제이앤시.
- 리득춘(1992), 한조언어문자관계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延吉.
- 박병철((1997), 한국어 훈석 어휘 연구, 이회.
- 배대은(2002), 吏讀文法素의 通時的 研究, 경상대학교 출판부.
- 卞麟錫(2000), 唐 長安의 新羅史蹟, 亞細亞文化社.
- 成周鐸(1971), 武寧王陵, 百濟研究2輯, 學研文化社.
- 梁柱東((1965/1997),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 尹善泰(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新羅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 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 尹善泰(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제56호.
- 尹善泰(2006가), 百濟 泗沘都城과 ‘峒夷’, 충청문화재단연구원, 동아고고논단 제2집.
- 尹善泰(2006나), 한국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한국역사연구회 기획 발표 논문집.
- 윤용구(2010), 손영중, <고구려사>(전5책, 2006~2008)에 소개된 새로운 문자자료, 한국목간학회 발표문(2010.11.19).
- 李基文(1968),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4號.
- 李基文(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2.
- 李基文(1991),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 李基文(1998/2008), 國語史概說(신정판), 塔出版社.
- 李基文(2005), 우리나라 문자사의 흐름, 口訣研究14.
- 李丞宰(2008), 295번과 305번 목간에 대한 管見, 《나무속의 암호 木簡》, 예맥: 58~60면.
- 李丞宰(2009가), 墨書紙片의 語學的 意義, 《불국사석가탑유물2-중수문서》, (주)시티파트너.
- 李丞宰(2009나), 목간과 국어학,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國立伽倻文化財研究所·國立扶餘博物館: 111~124면.
- 李勇(2006), 廣開土王碑文의 吏讀的 要素, 구결연구17집: 71~90면.

- 이용현(2007), 문자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 구결연구19: 191~226면.
- 李宇泰(2005), 金石文을 통하여 본 漢字의 導入과 使用, 한국고대사연구38: 113~34면.
- 李浚碩(1998), 國語借字表記法の 起源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 任昌淳(1983), 百濟의 漢文文化, 百濟研究14輯, 學研文化社.
- 鄭光(2003), 韓半島에서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 口訣研究11: 53~86면.
- 鄭光(2006), 이문과 한이문, 구결연구16: 27~70면.
- 鄭永鎬(2000),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意義, 中原高句麗碑 研究, 학연문화사: 서울.
- 鄭在永(2003), 百濟의 文字 生活, 口訣研究11: 87-124면.
- 鄭在永(2008), 월성해자 149호 목간에 나타나는 이두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創刊號: 93~110면.
- 鄭在永(2009), 韓國 古代文字資料에 나타나는 終結語尾 ‘之’에 對하여, 《古代 文字資料로 본 동아시아의 文化 交流와 疏通》, 東北亞歷史財團.
- 鄭喆柱(1988), 新羅時代 吏讀의 研究, 啓明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朝鮮總督府(1937/1975/1986), 吏讀集成, 中樞院/日本國書刊行會/大堤閣影印本.
- 叢文俊(1999),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光개토호태왕비연구100년, 학연문화사.
- 주보돈(2007),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31~48면.
- 최남희(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 정동준(2009), <佐官貸食記> 목간의 제도사적 의미, 木簡과 文字4號: 35~58면.
- 韓國歷史研究會 編(2004),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 함순섭(2006), 안압지 목간 출토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 검토, 原稿本(2006.6.25. 慶州博物館 木簡研究會에서 發表).
- 甘肅人民美術出版(1995), 敦煌漢簡書法精選, 蘭州新華印刷廳: 中國 甘肅省.
- 國立歷史博物館/高雄市立美術館(1994), 王朝秘錄-古中原考古文物展, 臺灣: 國立歷史博物館編輯委員會.
- 三上喜孝(2007), 日本古代木簡の系譜, 韓國木簡學會 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集.
- 董志翹(2009), “中”의 文法的 意味와 文法的 機能 略論, 《古代 文字資料로 본 동아시아文化 交流와 疏通》, 東北亞歷史財團.
- 藤本幸夫(1986), 中字攷, 《日本語研究(二)》, 明治書院: 東京.
- 佐竹保子(1984), 百濟武寧王誌石の字跡と中國石刻文字との比較, 朝鮮學報111輯.
- 小林芳規(2002가),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8輯: 50면~76면.
- 小林芳規(2002나),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特に, ‘判比量論’に書き入れられた新羅の文字と記號-- , 書香 第19號: 4~6面, 京都: 大谷大學圖書館報.
- 小林芳規(2010), 日本의 오코토點의 起源과 古代 韓國語의 點吐와 의 關係, 口訣研究 25: 21면~46면.
- 小倉進平(1929/1974),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亞細亞文化社影印.
- 和田 萃(2010), 木簡は語る,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 岩波新書.
- Kalgren, B. (1966),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Cheng-wen publishing company: Taipei.
- Kwon, In-Han (2010), The Evolution of Ancient East Asian Writing Systems as Observed through Early Korean and Japanese Wooden Tablets,

Korean Journal, Vol.50, No.2.

Lee, SeungJae(2010), On the Early Korean Numerals Inscribed on Wooden Tablet
no.318,

Writings And Civilizations(Proceedings of the SCRIPTA 2010),
The Hunminjeongeum Society, pp.129~172.